

AI 신입 개발자가 되고싶은 ROTC출신, 제조업 영업관리 경력을 보유한 구직희망자



서태원 1989년 (34세/만 32세) | 남 | 구직중
✉ seotae89@gmail.com
☎ 010-7576-5640
☎ -
🏠 (14533) 경기 부천시 신흥로276번길

학력사항	경력사항	희망연봉	희망근무지/근무형태	포트폴리오
대학교(4년) 졸업	경력 1년 2개월	회사내규에 따름 (직전 연봉 : 4,200 만원)	서울전체 정규직	총 2건

학력 최종학력 | 대학교 4년 졸업

재학기간	구분	학교명(소재지)	전공	학점
2021.03 ~ 2021.09	휴학중	중앙대학교(서울)대학원(석사) (서울)	융복합표준정책학과	4.16 / 4.5
		휴학사유 AI관련 교육을 받기 위하여		
2009.03 ~ 2013.02	졸업	홍익대학교(서울) (서울)	기계시스템디자인공	3.02 / 4.5
2005.03 ~ 2008.02	졸업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이과계열	-

경력 총 1년 2개월

근무기간	회사명	부서/직급/직책	지역	연봉
2018.08 ~ 2019.09 (1년 2개월)	오덱	Sales&Marketing / 사원 (팀원)	인천	4,200만원
	<div><div>담당업무</div>Supply Chain 관리 및 매출마감. Sales report 작성.</div> <div><div>퇴사사유</div>학업</div>			

자격증/어학/수상내역

취득일/수상일	구분	자격/어학/수상명	발행처/기관/언어	합격/점수
2021.11	수상내역/공모전	우수팀 선정	멋쟁이사자처럼 AI스쿨	-
2017.04	어학시험	IELTS	영어	6점
2019.06	어학시험	TOEIC	영어	780점/PASS
2018.08	자격증/면허증	컴퓨터활용능력2급	대한상공회의소	최종합격

2018.02	자격증/면허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국사편찬위원회	최종합격
2015.07	자격증/면허증	1종보통운전면허	경찰청(운전면허시험관리단)	최종합격
2011.10	자격증/면허증	태권도 2단	대한태권도협회	최종합격
2015.02	자격증/면허증	공학인증	ABEEK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최종합격

대외활동

기간	구분	기관/장소	내용
2016.08 ~ 2017.09	해외연수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및 해외 어학연수 - 6개월 어학연수 - 4개월 아르바이트 - 기타 여행
2012.03 ~ 2012.05	교내활동	국제언어교육원	유학생도우미 활동 (중국유학생)
2010.08.09 ~ 2010.08.12	교내활동	홍익대학교학생처	해비타트 봉사활동 (대전지역)
2010.10 ~ 2013.02	동아리	TEAM401	교내 스노우보드 동아리활동

보유기술

보유기술명/수준/상세내용
TensorFlow
Python
매출관리
거래처관리

취업우대사항

병역대상	군필 2013.03 ~ 2015.06 육군 중위 만기제대
------	---

포트폴리오/기타문서

파일 구분	파일명
포트폴리오	https://taeding.github.io/ <div> <div>PDF</div> <div>와인추천시스템.pdf 4.9MB</div> </div>

경력기술서

기간 : 2018-08~2019-09

근무처 : ORDEG (UMICORE)

직위 및 부서 : 사원 / Sales&Marketing

ORDEG은 UMICORE의 자회사로 주로 자동차 촉매를 생산하여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입니다.

주요업무

- 영업1팀 소속으로서 저는 Supply Chain 관리 및 매출 관리 업무를 하였습니다. 촉매의 단가가 고가였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급계약이 아닌 사급거래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여 Customer인 완성차 업체와 물품을 납품하게 되는 Canner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없애고, 매월 마감업을 진행하여 Sales Report를 작성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양산차용 외의 촉매로 파이롯트에 들어가는 Sample의 수량 및 납기일 등을 전반적으로 조율하며 관리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

[성장과정]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생을 마칠 때까지 항상 공부해야 한다'라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말씀이 저의 신념이자 좌우명입니다. 서재에 가면 항상 공부하시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직업적인 위치가 안정적으로 잡힌 후에도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하시는 모습을 보며 어릴 때부터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꼽았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는 모든 어른들이 공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에서야 비로소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큰 뜻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서울에서 하시던 사업을 정리하고 부천으로 사무실을 옮긴 날이었습니다. 재료공학을 전공하셨던 아버지는 전공과 전혀 무관했던 광고 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전공과 다른 일을 하시는 아버지이기에 해당 전공 지식은 없을 것으로 생각해왔던 저는, 그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너털너털해진 디자인 전공 서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무실에서 그 책과 아버지를 보며 그동안 아버지께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셨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일은 다시금 배움의 중요성을 느끼고 앞으로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장교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많은 병사들은 군대라는 조직에 대해 항상 같은 일만 반복하는 지루한 곳이라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생활하는 간부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병사의 업무와 그들의 업무에 선을 그어 매우 수동적이고 의존적으로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장교로서 병사들의 업무를 습득하는 것이 기본적이면서도 전체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병사들이 하는 일이 어떤 프로세스로 돌아가는지 직접 배우며 그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병사의 업무를 배운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또한 기본에 충실해야 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 입사하여 어떠한 환경에서도 배울 점을 항상 찾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장교 시절 익힌 공동체 의식은 회사에서 진정한 동료애를 발휘할 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시절 익힌 소통 능력과 책임감은 조직 생활에서 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타 부서와도 시너지를 강화하여 업무 역량을 향상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활동 : 학업 이외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했던 다양한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저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이며 글로벌 역량도 겸비한 준비된 지원자입니다.

군 전역 이후 더 많은 경험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ROTC 생활로 학창시절 방학 기간에는 군사훈련으로 해외 생활을 할 기회가 적었기에 워킹홀리데이로 더욱 관심이 쏠렸습니다. 영어권 국가이지만 남들이 다 가는 호주나 캐나다가 아닌 아일랜드라는 나라는 좀 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 영어 실력을 쌓기 위해 더블린 대학교에서 어학연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영어공부를 위해 어학연수를 온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뭉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해 현지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대학 내 서핑 동아리에 지원하였습니다. 동아리 내에 유일한 아시아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제 특유의 적극적인 태도로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었고, 결국에는 가장 친한 친구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인들과 아일랜드의 지방으로 여행을 다니며 서핑도 즐기고 방학 기간에는 포르투갈로 1주일간 서핑 트립도 떠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짧은 기간 동안 영어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었고, 현지인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어학당 친구들이 현지 생활에 융화되고 싶어 했지만 용기를 내지 못했을 때, 한 발 더 적극적으로 내디딜 수 있는 적극성과 현지 생활을 통해 얻은 글로벌 역량은 저의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 협업하여 참여했던 프로젝트 중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어떤 것이고 어떤 역할로 어떻게 기여하셨나요?]

저는 '멋쟁이 사자처럼'에서 K-digital training 일환으로 인공지능 통합과정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랜만에 처음 보는 사람들과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프로젝트를 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전부 zoom을 통한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을 들은 지 보름 정도 밖에 안된 상태에서 첫 프로젝트 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봐도 어색할 수 있는 사이에서 온라인 프로젝트에서 느껴지는 어색

함은 모두가 처음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5인 1조의 프로젝트에서 저는 조장을 자처하였고, 1주일간의 프로젝트 기간 동안 프로젝트를 지휘했습니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저였지만, 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해서 팀원들 간의 소통을 열심히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며 팀원 전체의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1차 목표를 해낼 수 있었기에 성공적인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건 AI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을 해보셨나요? 어떤 상상이었나요?]

AI에 관심이 생기게 된 계기는 이세돌9단과 알파고와의 바둑대결을 보고 처음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막연하게 인공지능이 바둑을 둘 정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정말 모든 걸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 생활 중 ERP시스템을 ORACLE에서 SAP로 전환하는 시기가 맞물렸었는데, 그 당시에 회사 시스템을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이 AI가 정말 고도화된다면, 제조업의 경우 많은 인력을 줄여 소수의 인원으로도 업무를 처리하는게 가능할 정도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데이터가 축적되어 매출에 따른 재고관리 그에 따른 부족한 자재 발주와 예상판매, 실질적 매출에 따른 회계장부 처리 등 말입니다. 제조업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 생활에서도 알고리즘 등을 이용해 데이트코스 추천 등 사람들이 결정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분야라면 AI가 큰 힘이 됩니다.

[최근에 겪은 문제가 있었나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앞선 질문의 답변에서 말했던 프로젝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주일이라는 짧은 미니 프로젝트였었지만 조원들의 연령도 다양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들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공자, 개발자 업무 5년 이상의 숙련자, 타 교육과정 수료자, 첫 디지털 교육 수강자였습니다. 프로젝트 주제 선정과 방향성을 잡고 진행을 하였지만, 각자의 역량 차이로 속도가 차이 나게 되었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흥미를 잃게 되거나, 팀 전체의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생각했습니다. 과거 군에서 장교 생활을 했을 때를 기억해 보면 소수의 불만이 불씨가 되어 팀워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팀장으로서 속도가 빨라서 혹은 느려서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각 팀원에게 심도 있는 문제를 던져주거나 다 같이 코드를 리뷰하면서 이해를 공유하여 팀워크를 유지시켰습니다.

팀원들과는 프로젝트 이후에도 오프라인에서 같이 식사도 하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